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2020. 1.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 [ 목 차 ]

I. 일반현황	3
II. 2019년 성과와 한계	11
III. 2020년 업무추진 환경 및 방향	16
IV.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9
1.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19
2.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30
3. 자율과 협력기반의 기관 운영	37
V. 현안	41
1.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 지역불균형 해소	41
2.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42
VI. “2020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43
VII. 참고자료	44

# I. 일반현황

## 1 연혁 · 임무

### □ 연 혁

- 1972.08.14. 문화예술진흥법 제정(법률 제2337호)
- 1973.10.1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 1979.05.21. 미술회관 개관(현 아르코미술관)
- 1981.04.01. 문예회관 개관(현 아르코예술극장)
- 1992.05.27.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현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 1992.10.01. 예술자료관 개관 (현 아르코예술기록원)
- 2005.01.27.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제7415호)
- 2005.08.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인 설립(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해산)
- 2007.04.0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08.09.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
- 2010.02.10. 아르코예술극장 분리 후 통합법인(대학로공연예술센터) 출범
- 2010.03.12. 아르코예술정보관 분리 후 국립예술자료원 출범
- 2010.04.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권 이전(구로구 새말로 120)
- 2010.11.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위원회 출범
- 2012.12.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기 위원회 출범
- 2014.04.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나주 청사로 이전
- 2014.05.29.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 기관 통합
- 2015.02.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기 위원회 출범
- 2017.1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기 위원회 출범
- 2018.11.02. 제7대 박종관 위원장 취임
- 2019.01.31.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 변경

### □ 임 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정관 제2조(목적)
  -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원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지원
  -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 그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2 조직현황 [1처 4본부 1극장 1관 1실 19부]







### 3 인원현황

구 분	계	임원	소계	일 반 직	
				사무처장	일 반 직
정원	265	2	263	1	262
현원	257	2	255	1	254

### 4 위원회 구성

□ 위원현황 : 10명 (위원장 1명, 비상임위원 9명)

이름(생년)	주요 경력	임 기
 <b>박종관</b> (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現)</li> <li>(사)예술공장두레 상임연출('89~現)</li> <li>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現)</li> <li>문체부 문화비전2030 [새 문화정책] 준비단 위원('17~'18)</li> <li>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15~'18)</li> <li>충북문화재단 이사('11~'18)</li> <li>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05~'08)</li> </ul>	'18.11.2.~ '21.11.1
 <b>강윤주</b>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매개행정전공 교수(현재)</li> <li>문화연대 집행위원(현재)</li> <li>서울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li> <li>KBS, SBS 방송작가</li> </ul>	'18.11.2.~ '20.11.1.
 <b>강홍구</b> (19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 고은 사진미술관장(현재)</li> <li>서울예대 디자인학부 사진과 강사('08~현재)</li> <li>연세대학교 강사('05.3~'14.2)</li> </ul>	'17.11.13.~ '19.11.12.
 <b>김기봉</b>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상임이사('03년~현재)</li> <li>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03~현재)</li> <li>성균관대 예술학협동과정대학원 겸임교수(현재)</li> <li>국립아시아문화전당 책임운영기관 내부 평가단장('16년~현재)</li> </ul>	'17.11.13.~ '19.11.12.
 <b>김혁수</b>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원도립극단 예술감독(현재)</li> <li>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14년~현재)</li> <li>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13년~현재)</li> <li>(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12년~'18.8)</li> <li>(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15.4~'18.4)</li> </ul>	'17.11.13.~ '19.11.12.
 <b>나종영</b>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부이사장('15.4~현재)</li> <li>(사)한국예술인총연합 광주지회장('11.2~'13.1)</li> <li>(사)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10.2~'12.2)</li> </ul>	'17.11.13.~ '19.11.12.

이름(생년)	주요 경력	임 기
 <b>이승정</b>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려대학교 교수('97.2~현재)</li> <li>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예술감독</li> <li>한국예총 부회장('16.2~현재)</li> <li>전남예총 회장('15.3~현재)</li> </ul>	'17.11.13.~ '19.11.12.
 <b>이희경</b>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 강사(현재)</li> <li>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사(현재)</li> <li>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li> <li>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초빙교수</li> </ul>	'19.2.21.~ '21.2.20.
 <b>조기숙</b>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화여대 무용과 교수(현재)</li> <li>이화여대 공연문화연구센터 소장(2011~2018)</li> <li>무용역사기록학회회장</li> <li>서울시 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li> </ul>	'18.11.2.~ '20.11.1.
 <b>최창주</b>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02~'15.8)</li> <li>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부회장(현재)</li> <li>무형문화재 17호 봉산탈춤 전수조교</li> </ul>	'17.11.13.~ '19.11.12.

□ 소위원회 구성현황 : 10개 소위원회 운영

소위명	주요 논의사항 및 참여위원			
<b>현장소통 소위원회 (8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장르 분야 또는 현장이슈에 대해 현장소통 및 공론화</li> <li>필요시 장르분과, 공론화 분과(토론회, 포럼) 등 실시</li> </ul>			
	<table border="1"> <tr> <td>내부(1)</td> <td>김기봉(위원장)</td> </tr> <tr> <td>외부(7)</td> <td>김대현, 김수희, 김윤규, 박동수, 박정희, 한유진, 홍태림</td> </tr> </table>	내부(1)	김기봉(위원장)	외부(7)
내부(1)	김기봉(위원장)			
외부(7)	김대현, 김수희, 김윤규, 박동수, 박정희, 한유진, 홍태림			
<b>예술정책·지원 소위원회 (9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지원 사업 운영, 개선 및 예산안 마련</li> <li>사업심의방법 및 기준, 지원심의위원 선정 지원 등</li> </ul>			
	<table border="1"> <tr> <td>내부(3)</td> <td>강홍구(위원장), 나종영, 조기숙</td> </tr> <tr> <td>외부(6)</td> <td>심정민, 장지영, 권진, 이동순, 장성희, 한정호</td> </tr> </table>	내부(3)	강홍구(위원장), 나종영, 조기숙	외부(6)
내부(3)	강홍구(위원장), 나종영, 조기숙			
외부(6)	심정민, 장지영, 권진, 이동순, 장성희, 한정호			
<b>지역협력 소위원회 (8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논의</li> <li>문화복지 사업 운영, 개선 논의 등</li> </ul>			
	<table border="1"> <tr> <td>내부(3)</td> <td>이승정(위원장), 김기봉</td> </tr> <tr> <td>외부(5)</td> <td>김광훈, 김지원, 배윤수, 정미숙, 주미하</td> </tr> </table>	내부(3)	이승정(위원장), 김기봉	외부(5)
내부(3)	이승정(위원장), 김기봉			
외부(5)	김광훈, 김지원, 배윤수, 정미숙, 주미하			

소위명	주요 논의사항 및 참여위원	
재원확충 소위원회 (7명)	· 기금 재원확충 방안 및 활동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방안 및 활동	
	내부(0)	-
	외부(7)	노재천(위원장), 김용연, 배국환, 유인택, 이흥구, 장태평, 조현재
미래전략 소위원회 (7명)	· 중장기 발전 등 전략기획, 기관 혁신과제 관리 · 기금운용계획 등 기관 예산 검토	
	내부(2)	김혁수(위원장), 김기봉
	외부(5)	신재욱, 이원재, 이의신, 이진아, 최도인
사업평가 소위원회 (8명)	· 위원회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이행결과 점검 등	
	내부(2)	조기숙(위원장), 이승정
	외부(6)	김영신, 신희복, 어일선, 오진호, 이미배, 전용호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7명)	· 기존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성평등 실태조사 연구 활동 · 성평등 예술지원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안 도출 등	
	내부(2)	강윤주(위원장), 강흥구
	외부(5)	김인설, 김정아, 박소현, 오세형, 홍보라
남북및국제교류 소위원회 (7명)	· 남북교류사업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 국제교류 사업 운영, 개선 논의	
	내부(2)	나종영(위원장), 최창주
	외부(5)	강영근, 노승림, 안진의, 채희운, 오창은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 (7명)	·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 ·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와 관심도 제고	
	내부(2)	이희경(위원장), 강윤주
	외부(5)	김준기, 박은주, 서지혜, 유지원, 홍기원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 (8명)	·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에 대한 발전적 담론 형성 · 다원적이고 장르융합적인 담론을 포괄하는 새로운 창작지원 논의	
	내부(2)	최창주(위원장), 이희경
	외부(6)	장순향, 류기형, 임웅수, 김모선, 박문희

## 5 2020년도 예산

### □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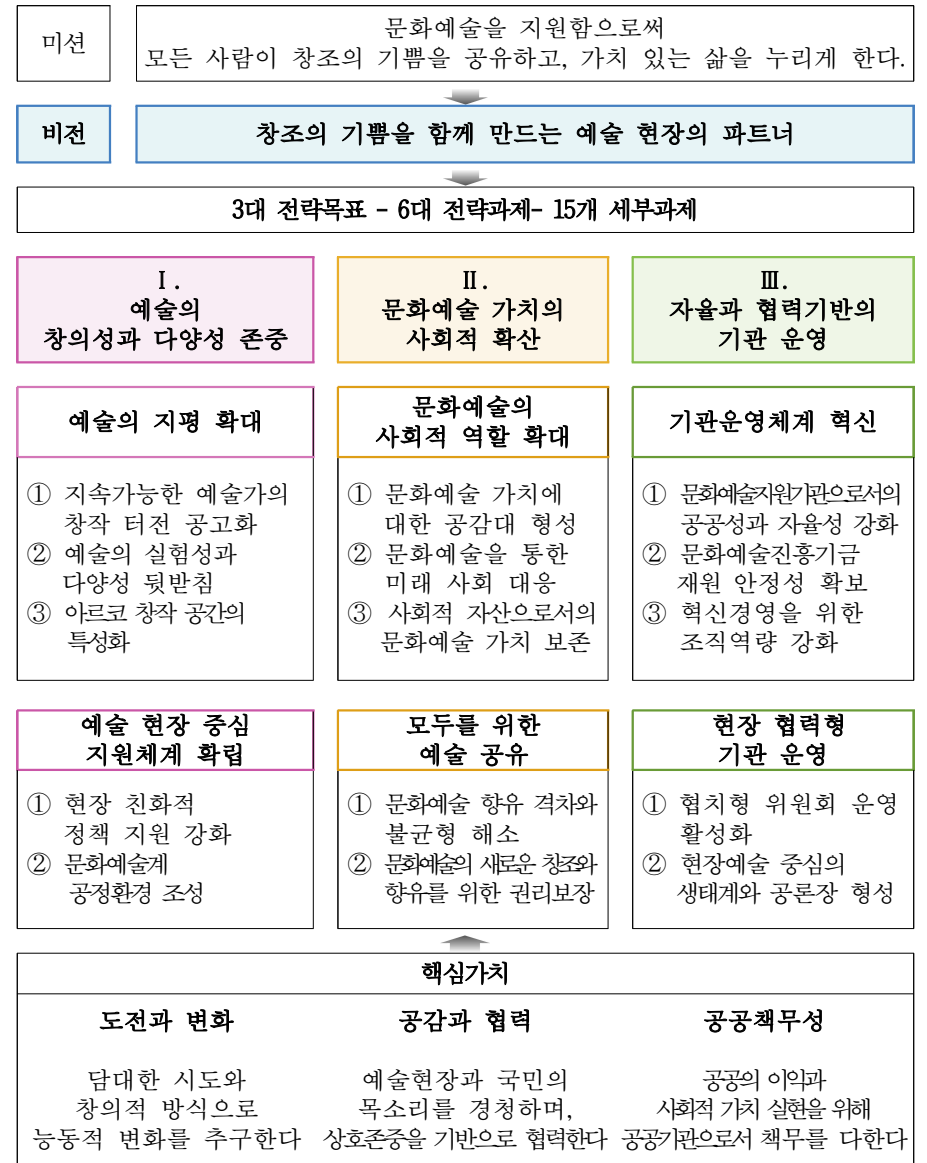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요구	정부안	확정(B)	B-A	%
<b>총 계</b>	468,533	468,533	567,650	533,410	<b>543,910</b>	75,377	16.1
<b>자체수입 소계</b>	63,631	63,631	66,079	66,079	<b>66,079</b>	2,448	3.8
○ 관유물대여료	1,175	1,175	1,175	1,175	1,175	-	-
▪ 건물대여료	1,175	1,175	1,175	1,175	1,175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280	3,280	4,500	4,500	4,500	1,220	37.2
▪ 기타재산수입 (적립금이자수입)	3,280	3,280	4,500	4,500	4,500	1,220	37.2
○ 기타경상이전수입	34,754	34,754	35,982	35,982	35,982	1,228	3.5
▪ 법정부담금	-	-	-	-	-	-	-
▪ 민간출연금(기부금)	24,276	24,276	25,504	25,504	25,504	1,228	5.1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금집행잔액반납금)	10,478	10,478	10,478	10,478	10,478	-	-
○ 입장료수입	6,244	6,244	6,244	6,244	6,244	-	-
▪ 입장료수입 (골프장운영이익금 등)	6,244	6,244	6,244	6,244	6,244	-	-
○ 잡수입	18,178	18,178	18,178	18,178	18,178	-	-
▪ 기타잡수입 (간행물판매수입금 등)	48	48	48	48	48	-	-
▪ 기타영업외잡수입 (경륜경정수익금)	18,130	18,130	18,130	18,130	18,130	-	-
<b>정부내부수입 소계</b>	<b>305,561</b>	<b>305,561</b>	<b>311,824</b>	<b>282,824</b>	<b>293,324</b>	△12,237	△4.0
○ 전입금	305,561	305,561	311,824	282,824	293,324	△12,237	△4.0
▪ 일반회계전입금	50,000	50,000	50,000	21,000	21,000	△29,000	△58.0
▪ 기금전입금	255,561	255,561	261,824	261,824	272,324	16,763	6.6
- 복권기금전입금	105,561	105,561	111,824	111,824	122,324	16,763	15.9
- 체육기금전입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 관광기금전입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	-
<b>여유자금회수 소계</b>	<b>99,341</b>	<b>99,341</b>	<b>189,747</b>	<b>184,507</b>	<b>184,507</b>	85,166	85.7
○ 정부예금회수	99,341	99,341	189,747	184,507	184,507	85,166	85.7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9,341	99,341	189,747	184,507	184,507	85,166	85.7

## □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요구	정부안	확정(B)	B-A	%
<b>총 계</b>	<b>468,533</b>	<b>468,533</b>	<b>567,650</b>	<b>533,410</b>	<b>543,910</b>	<b>75,377</b>	<b>16.1</b>
사업비 소계	251,077	251,112	249,820	262,208	267,795	16,718	6.7
○ 예술창작역량강화	67,615	67,627	73,299	76,725	79,088	11,473	17.0
▪ 예술창작지원	45,033	45,041	43,410	43,485	45,548	515	1.1
▪ 예술인력육성	14,082	14,086	14,389	14,240	14,540	458	3.3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옹자)	8,500	8,500	8,500	19,000	19,000	10,500	123.5
○ 지역문화예술진흥	27,972	27,927	17,253	21,253	21,527	△6,445	△23.0
▪ 지역문화예술지원	6,739	6,739	6,457	10,457	10,457	3,718	55.2
▪ 예술의관광자원화	21,233	21,233	10,796	10,796	11,070	△10,163	△47.9
○ 예술향유기회확대	155,490	155,513	159,268	164,230	167,180	11,690	7.5
▪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2,950	22,973	22,431	23,877	23,877	927	4.0
▪ 문화예술향유지원	132,540	132,540	136,837	140,353	143,303	10,763	8.1
○ 기금운영비	20,654	20,663	20,954	21,487	21,487	833	4.0
▪ 인건비	11,498	11,498	11,843	11,978	11,978	480	4.2
▪ 기관운영비	7,491	7,500	7,491	7,866	7,866	375	5.0
▪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580	580	557	580	580	-	-
▪ 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1,085	1,085	1,063	1,063	1,063	△22	△2.0
○ 복권기금반환금	5,000	5,560	5,000	5,000	5,000	-	-
▪ 복권기금반환금	5,000	5,560	5,000	5,000	5,000	-	-
○ 통화금융기관예치	191,802	191,198	291,876	244,715	249,628	57,826	30.1
▪ 통화금융기관예치	191,802	191,198	291,876	244,715	249,628	57,826	30.1

## 6 아르코 비전 2030 체계도



## II. 2019년 성과와 한계

### 1 성과

#### ◇ 대통령 표창 수상 (9.25)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공로 인정

#### ◇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 (6.20)

- 문화예술분야 준정부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 등급 획득

#### ◇ 2018 기금운용평가 문화예술진흥기금 '탁월' (5.29)

- 2년 연속 가장 높은 평가 등급 획득

#### ◇ 2019 국제비즈니스 대상 (IBA) 금상 수상 (8.27)

- 예술나무 영상광고 비디오 부문 수상

#### □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예술현장과 소통 확대

- 다양한 예술현장의 참여가 보장되는 소위원회를 기능별 소위원회에서 의제 중심의 소위원회 대폭 확대 구성 및 운영
- ('18) 5개 소위원회 49회 개최 → ('19) 10개 소위원회 93회 개최

소위원회 확대 구성	
2018년도 소위원회	2019년도 소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예술정책·지원 소위원회	예술정책·지원 소위원회
예술확산·지역협력 소위원회	지역·협력 소위원회
재원확충 소위원회	재원확충소위원회
미래전략소위원회	미래전략소위원회
	(신규) 예술가치 확산 소위원회
	(신규) 남북및국제교류 소위원회
	(신규) 사업평가소위원회
	(신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신규)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

- 현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위원회 현장소통 활동 추진

\* 제1차 예술인 집담회(8.26), 성평등예술지원정책 오픈테이블(7.1/10.10)  
 도시재생 관련 예술가 레지던시 실태 토론회(5.23)

- 현장소통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예술현장에서 활발히 오가는 화두 및 의제, 제도개선의 공론화를 위해 손쉽게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개통
    - \*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및 기관 홈페이지 내 '아르코현장소통' 페이지 개설
- 위원 선임 방식, 극장·미술관 개방형 직위 도입 등 기관 현안 사항 및 예술현장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 심의개선방식 현장 토론회(9.17), 위원 선임 방식 개선 토론회(8.1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및 아르코미술관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7.17)

#### □ 현장이 필요하고 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업 신규 추진

- (생활안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사업'으로 1,199건 대출 지원
  - 경제적으로 열악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급 생활자금 소액 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망 제공
- (다년간 집중)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으로 51개 단체 지원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술단체를 다년간 집중 지원·육성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창작기반 마련
  - 예술단체의 신규 프로젝트 및 작품 유통, 인력운영 지원 등 예술단체의 창작역량강화 및 경영능력 제고를 통해 자생력 강화
-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생애컷지원사업'으로 110명 지원
  - 청년예술가의 예술현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지원의 장벽을 낮춰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 □ 사업 목적 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원심의제도 개선

- 예술현장의 혁신요구에 따라 정시공모 일정 복원 및 정례화
  - \*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사업부터 적용
- 사업·장르의 특성에 따라 심의방법 다각화 및 온라인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심의효율화
  - \* 전수검토제, 심의참관제, 관객평가제, 블라인드심의회, 사업평가 반영 등
  - \* 공정심의 설문조사 심의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 응답 ('18) 62.8% → ('19) 66.1%(3.3%p ↑)

## □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로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

- 지원금 인상 및 발급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과 발급자 증가로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 확대
    - \* 지원금 ('18) 연간 7만원 → ('19) 연간 8만원 / 발급자 ('18) 1,591,777명 → ('19) 1,629,360명
- 이용환경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 거동불편자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 재충전 제도 및 찾아가는 모바일 발급제도 신규도입
  - 가맹자 관리 및 부정행위 관리를 위한 지침 제·개정으로 관리체계 강화

**문화누리카드로 저소득층 문화예술 향유 증진**

- '16년 대비 '18년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은 전체 평균이 3.2% 증가함에 비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대상자인 가구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은 12.2%가 증가하여 전체 평균보다 그 증가폭이 약 9%p 높음

<소득 계층별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2016-2018)>

(단위: %)

구분	2016년	2018년	증가율	
<b>전체 평균</b>	<b>78.3</b>	<b>81.5</b>	<b>3.2</b>	
가구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30.9	42.5	11.6
	100~200만원 미만	45.7	58.4	12.7
	200~300만원 미만	71.2	75.9	4.7
	300~400만원 미만	81.0	81.4	0.4
	400~500만원 미만	86.7	88.1	1.4
	500~600만원 미만	89.1	91.6	2.5
600만원 이상	89.5	91.9	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 □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아르코비전2030 수립

-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및 기술 발달, 경제 여건 등 사회 변화를 비롯한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예술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 '합의제' 기구 전환 취지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예술현장 지향적 사업 개편 및 업무 혁신 추진 방향 발표
  - \* 예술현장, 유관기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비전 선포식 개최 (10. 22)

## 2 부족한 점

### □ 예술 현장에서부터 신뢰 회복 절실

- 현장 소통을 통한 심의제도 개편 및 사업 구조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신감 잔존
  - ('18)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77.3점 수준등급 '미흡', 상대등급 'B등급' ('19. 4월 발표) 및 ('18)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 ('19. 8월 발표)

### □ 사업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방식 전면 개선 요구

- '1회성 지원금 나눠주기식'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 답습으로 인한 성과 저하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
- 2019 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 결과

대상사업	평가결과
예술창작지원	감축(72.5점) : 15억원 감축
예술인력육성	감축·사업방식변경(77.6점) : 6억원 감축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정상추진(87.2점)
문화예술향유지원	감축(79.3점) : 40억원 감축

- 비전2030 수립 및 발표('19. 10월)에 따른 사업 개편 필요

### □ 지원사업 수도권 지역 편중 해소 필요

- ('19. 국정감사) 위원회 지원사업이 수도권(서울·경기)에 집중되는 현상 반복 지적
  - 공연예술 분야 공연단체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

### □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구조 마련 필요

- 모금제도 폐지 이후 기금 자체수입 감소, 지속적 사업규모 확대로 고갈 위기로 인해 현재 국고 및 타 기금 전입으로 편성
  - '18년 2,321억원, '19년 3,056억원 전입됐으나, 임시방편일 뿐으로, 여전히 재원구조가 취약한 상황
-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로 관광진흥법, 복권및복권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 미의결

개정안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광기금 외에 문예기금에도 납부하도록 규정
복권및복권기금법	·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예기금을 추가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상향조정
문예진흥법	· 문예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과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문예기금의 재원으로 지정

⇒ 21대 국회 구성 이후 재발의 추진 필요

## Ⅲ. 업무 추진 환경 및 방향

### 1 추진 환경 및 방향

#### □ [창작활동] 불안정하고 열악한 창작 여건 개선 필요

- 여전히 열악한 예술 창작 환경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 지난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 감소 ('15) 9.1회 → ('18) 7.3회
  - 예술경력 단절 경험률 증가 ('15) 15.9% → ('18) 23.9%
    - \* 예술 활동을 포기한 이유로는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68.2%, '질병' 7.3%, '출산/육아' 7.2% 순으로 나타남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 1,281만원
    - \* '없음'이 28.8%로 가장 높았고, '5백만원 미만' 27.4%, '1~2천만원 미만' 13.2%순임
    - \* 예술활동 개인 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72.7%에 해당함
- 문화예술계 비민주적, 비인권적 관행과 제도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와 척결 요구 폭발
  - 성범죄, 성폭력, 저수당 지급 및 폐이백, 임금체불 등에 대한 공개적인 고발이 이어지면서, 인권보장 및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가

#### □ [문화향유] 국민의 문화예술 관심과 참여 의지, 활동 제고 부응

-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참여 의지와 활동 매년 증가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조사 이래 최초 80%대로 진입
    - \* '18년 문화예술 관람률 81.5% 관람횟수 5.6회, '16년 대비 전 분야 관람률 상승
  - 읍·면 지역 문화예술 관람률 크게 상승하여, 지역 간 격차 다소 완화
    - \* 읍·면 지역 관람률 71.7%( '16년 대비 6.0%p ↑), 대도시 85.2%, 중소도시 82.1%
  - 월 2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관람률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별 격차는 여전히

\* 100만원 미만 42.5%, 100~200만원 58.8%로 '16년 대비 11~12%p가 올랐으나, 600만원 이상 기구의 91.9%와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 발생

-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작품의 질' 응답

### □ [정책환경] 예술인주도 예술정책혁신과 지역분권 실현

- 블랙리스트 계기로 예술현장에서의 문화예술정책추진의 행정체계 재편 요구
  - 아르크혁신TF 23대 과제 및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권고 과제, 아르크비전2030의 실현
  -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전환 취지 및 정신의 실질적인 구현
- 지역분권, 문화자치를 강조하는 정부기조 및 예술현장의 요구에 부응
  -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 및 지역문화재단과 수직적 협력관계를 지양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개선
  - 예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이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의견 소통 창구로서 기관 운영 요구 증가

- ◇ (창작활동) 예술가가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열악하고 불안정한 창작환경에 대한 개선 및 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
- ◇ (문화향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의지 확대에 부응하여 문화예술 가치 확산 및 예술의 창의성이 사회 곳곳에 발현
- ◇ (운영체계) 현장중심의 예술 정책 발굴 및 전달체계에서의 수평적 협력 관계 구현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운영 체계 개선

## 2 전략 및 추진과제

- ◆ 아르크 비전 2030의 원년으로, 예술 현장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내실있는 지원 사업 운영
- ◆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기관 운영 체계를 혁신하여, 현장과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신뢰 회복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 ① [창작]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1. [창작지원]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2. [창작시설] 아르크 창작 공간의 특성화
3. [심의체계]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 ② [확산]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4. [가치확산]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5. [아카이브] 문화예술 가치 보존
6. [문화향유]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 ③ [혁신]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

7. [현장중심]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
8. [조직혁신] 기관운영체계 혁신

## IV. 주요 업무 계획

### 1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 ◆ 현장의 목소리

- 예술생태계에 대한 상황 파악과 예술현장의 의견 반영하여 창작산실 사업 심의 및 운영 개선 필요 \* 현장소통소위원회('19.4.23)
- 외부 현장전문가 영입을 통한 아르코 창작 공간의 특색 강화 \* 예술정책지원소위원회('19.5.31)
- 예술현장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평등·성교육 등의 방안 마련 \* 현장소통소위원회('19.4.23)

- ◇ 단계별·대상별 맞춤형 지원사업 체계 개편으로 예술 현장의 지원사업 체감도 제고
- ◇ 아르코 창작 공간의 명료한 특색과 전문성 강화
- ◇ 현장 친화적, 혁신적 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프로세스에 대한 예술현장의 신뢰 회복 및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기여

#### 1-1. [창작지원] 예술가의 창작터전 공고화

##### 창작단계별 | '창작의 모든 단계' 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과정지원-확대) 결과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창작의 과정 지원 확대

~'19년도 성과 단년도 결과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과정 지원 도입	▷	'20년도 운영 목표 위원회 전체 창작 지원사업 내 '과정' 단계의 지원 강화
--	---	---

- (확대) 창작과정 및 시도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
  - \* 작가 연구, 전시 연출 등 사전연구지원 6건 지원
  - \*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창작실험활동 ('19년) 23건 지원 → ('20년) 25건 지원 목표

- (신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한 연극·뮤지컬분야 대본 지원 신설 운영
  - \* ('20년) 2개 분야 총 10개 내외 창작대본 발굴 및 선정작의 연출가·제작자 매칭 방안 모색 등 프로모션과 제작(올해의 신작) 연계 지원
- (인프라 확대) 지역 협력을 통하여 창작 공간 신규 발굴
  - \* 문학집필공간지원사업 신규 지원 공간 발굴

- (작품지원-성과확산강화) 장르별 특성화된 작품 발표 기회 제공 및 성과의 확산과 피드백 강화

한계 결과물 발표 후 성과 관리 체계 미흡	▷	개선 분야별 작품 제작 및 발표 이후 성과·확산 및 피드백 강화
-------------------------------	---	---

- (문학) 작품집 발간 지원 선정 작가와 작품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 \* ('20년 신규) 작가 프로필북 제작 및 배포 창작활동 성과 추적조사 및 발간 수혜작품 2차 콘텐츠(오디오북 등) 제작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시각) 전시 지원으로 선정된 전시 중 우수콘텐츠를 선별하여 지역 순회, 네트워킹, 평론집 제작 등 집중 기획 사업 추진
- (공연) 우수작품발굴을 위한 장르별 특성에 맞춘 쇼케이스(실연심) 다원화 및 장르별 합평회 개최 등 전문가 피드백 강화
  - \* 쇼케이스 다원화 : (기존) 공연예술 전 장르 단일유형 실연형 심의 → (개선) 연극·창작뮤지컬 낭독형 심의 / 무용·전통예술·창작오페라 실연형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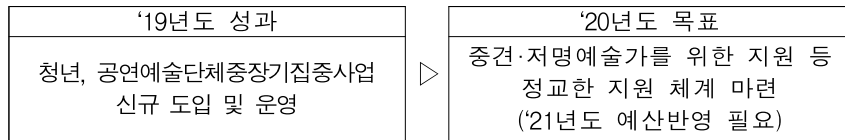
- (유통·확산지원-지원체계개선) 창작 작품의 유통과 확산 기반 강화

한계 단년도 지원·공모 시기 일정 등으로 적재적소의 지원 불가	▷	개선 수시 지원, 다년간 지원체계 전환으로 지원 효과 제고
--	---	--

- 예술현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예술단체 공연장 대관료 수시 지원 체계 도입
  - \* ('19년) 1회 공모 → (개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주관처 운영 및 수시 지원 체계 마련
- 전국 단위 축제 및 행사의 다년간 지원체계 전환 도입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19년 기준) 지정사업 12건, 공모사업 46건 단년 지원 → ('20년 개선) 장르별 대표축제 10건 내외 다년간 지원 / 우수축제 30건 내외 단년 지원으로 지원유형 이원화 및 집중지원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창작 작품의 향유자 점점 확대

- \* (공연예술온라인확산) 창작자·향유자, 예술인-기술자 등을 잇는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운영 및 최신 트렌드 공유 활성화, 네트워크 확장
- \* (비평연구지원)문학·시각·공연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을 통한 저변 확대
- \* (장르별 특화 작품 발표 공간 지원) △(문학) 온라인-사이버문학광장운영, 오프라인-문예지 지원 △(시각) 비영리전시공간·사립미술관 지원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외부 전문가 컨설팅 제공 △(공연) 세부 장르별 특성화 극장 30곳 발굴 및 운영 평가 강화

## 지원대상별 | 경력주기와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 운영



- **(청년)** 청년 및 신진예술가의 예술 현장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운영 강화
  - \* 창작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컨설팅·네트워킹 지원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단체)** 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년간 지원체계 안정적 운영
  - 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제시를 위해 컨설팅 체계 마련
  - \* ('19년) 51건 선정 → '21년까지 3년간 지원,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지원금 결정
  - \*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정보 제공 및 컨설팅 확대

## 국제교류 | 예술 분야 글로벌 플랫폼 기능 강화

- **(글로벌 플랫폼 개발 및 역할 확대)** 예술위 고유의 국제교류모델 개발
  - (한계) 유관 기관의 국제 교류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술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 모색 및 차별화 필요
  - (개선)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사업인 국제예술공동기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기획형 사업의 협력 모델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정체성 강화
  - \* 국제예술공동기금 협력 국가 지속 개발 : 영국, 독일, 덴마크, ('20) 싱가포르
  - \*\* 예술위원회(Arts Council) 간 업무협약을 통해 분야·권역별 플랫폼 구축 추진

- **(예술가·단체 국제역량 강화)** 민간차원의 문화예술 국제 교류 활동 지원, 국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 (한계) 개별화된 지원 사업운영으로 국제 진출 기회와 정보 제공 미흡
  - (개선) 지원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사업별 연계 강화로 해외 유통·확산 기회 제공으로 지원사업의 성과 강화
  - \* 분야별 초청, 공동협력 교류활동 지원 및 해외 주요 레지던스 참가 지원 확대 ('19년) 118건 → ('20년) 130건
  - \* 신진예술가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우수 작품 - 창작산실 연계한 국제사업 운영으로 위원회 지원 사업의 효과와 성과 제고

## 인력양성 | 예술가 및 현장인력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 □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 견인

- **(잡마켓 개척)** 예술인 고용정보 통합홍보 및 잡마켓 개척을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
  - (한계) 예술인력에 대한 장기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와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19 보조사업연장평가)
  - (개선) 국·공립 및 민간 지원단체의 예술인 직원채용 홍보 및 잡페어 개척을 통해 예술인력 고용시장의 활력 부여와 고용효과 입증
  - \* (기존)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선정단체의 개별적인 인력 선정 프로세스 진행
  - (개선) 연수단원(약200개처), 공연예술전문인력(약160개처),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약70개처) 등 총430개 단체(600여명)의 선발공고 공시 및 잡마켓 개척을 통한 단체와 예술인력 간 고용시장 활성화
- **(단계별 일자리 지원체계 확립)** 문화예술분야의 경력단계별로 현장에 필요한 일자리 유형 발굴 및 제공
  - (한계) 단년도 일자리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계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발생
  - (개선) 정규직 전환 및 고용안정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단계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지원과 창업교육 및 직무 교육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연간 104억 규모의 지원으로 600여명의 문화예술분야 청년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및 직무교육과 직업전환 등을 지원

\* 단계별 고용지원으로 예술인력에 대한 연쇄적 고용시장 창출

진입단계(34세 이하)	전문단계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li> <li>· 공연예술 전문인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단원 정규직 전환장려금 지급</li> <li>· 전문무용수지원센터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보장</li> <li>· 4대보험 납부의무 준수</li> <li>· 재취업·창업 및 직무교육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고용안정·직무교육</li> <li>· 문화예술기관 기획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촉진</li> <li>· 고용정보 확산 및 고용창출</li> <li>* 지원단체 잡페어 등</li> </ul>

### □ 예술가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 교육 사업 운영 강화

- **(차세대 예술가)** 한국창작예술아카데미 참여형 워크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및 대상 확대
  - (한계) 예술위와 사업주관처가 기획하는 탑다운 방식과 수혜자 중심의 제한적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업효과 미비
  - (개선)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참여자가 제안하고 기획, 심사하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개선하고 수혜자를 포함한 청년 예술가까지 대상 확대
  - \* (기존) 선정된 48명 대상 창작지원금 및 워크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개선) 창작지원금 48명 대상 유지, 워크숍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공개 운영
- **(현장 재직자)** 현장중심의 직무 재교육 확대 추진
  - 문예기금 외 고용보험기금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행정 및 기획, 무대기술 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현장 및 실무자 중심(NCS 기반)의 연 43개의 교육 과정(온라인교육 16개, 집체교육 27개) 확대 운영
  - \* 2020년도 예산현황 : 문예기금(593백만원), 고용보험기금(449백만원)
  - \* 2019년 대비 7개 과정 확대(2019년 36개 과정 → 2020년 43개 과정)
  - \* 교육 참여자 목표 : 2,800여명

## 1-2. 아르크 창작 공간의 특성화

### 극장

### 실험적 창작결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공공 공연장

#### □ 현장 예술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극장 운영

- (한계) 극장 운영의 현장성 · 전문성 부족(아르크혁신TF 조직분야 혁신과제)
- (개선) 개방형 직위로 극장장(본부장급) 채용 및 극장운영자문위원회 공개 모집으로 공연장 예술성 및 책임성 강화
  - \* 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 ('19년) 자체 선정 → ('20년) 공개 모집

#### □ 창작작품 발표 및 새로운 경향 제시 공간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창작, 실험적 경향, 신진예술가, 중규모화 작품을 위한 실험무대로서 공연예술의 새로운 경향(Trend) 제시
  - 잠재력 있는 예술가를 발굴, 파트너십을 통한 연간 총 10개 내외 작품 기획·제작 지원
    - \* 신진 작가 공연화 지원 <봄 작가, 겨울 무대> 작품 선정을 위한 낭독공연 확대 ('19년) 3개 작품, 연습실 공연 → ('20년) 8개 작품, 공연장 공연
    - \* 주목할 만한 연출가, 안무가 <아르크 파트너>를 통한 우수한 창작 작품 소개
  - 대관 단체에 저렴한 대관료, 최고의 공연 시설·기술·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서비스 제고로 높은 가동률 확보
    - \* '20년도 공연장 가동률 90% 수준 유지(2017 중앙정부 공연장 평균 가동률 72.3%)
    - \* 대관단체-극장 간 상호 모니터링을 통한 일상적 업무 소통체계 점검 ('19년) 대관단체 모니터링 참여율 46% → ('20년) 90% 이상 확대
  - 창작산실 등 공연창작지원 우수작품 실연·유통·확산의 거점화
  - 아르크예술극장 개관 40주년(2021.4월) 기념사업 준비
    - \*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 연보 기초조사 분석 실시('19.12월 예정)

#### <아르크예술극장 개관 40주년 기념사업(안)>

- 40년사 연보 발간·열람 서비스로 한국 현대 공연예술사 정리
- 기념공연 시리즈 (가칭)<아르크, 40년의 봄>
- 기념 영상 제작, 전시, 포럼 등 개최
-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 40년> 도서 발간

## □ [신규] 지역 공연장과 함께하는 상생하는 극장 운영

- (지역으로) 극장 제작 창작신작의 지역 공연장 재연(再演) 지원
  - 지역 공연장 재연을 감안한 기획·제작·마케팅 추진
    - \* 지역 문예회관 협의회 구성·운영('20.3월 예정/ 신규)
    - \* 아르코 기획공연 횟수 ('19년) 총 50회 → ('20년) 총 65회, 30% 증가
- (극장으로) 지역 우수 작품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 지원
  - 지역 공연장상주예술단체 우수 작품의 공연 대관 지원
  - 작품 선정 시기(1월중) 및 특성을 감안한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 □ 공공극장으로서 건강한 공연장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신규) 유관 공연장 공동으로 <공공극장 공연제작 매뉴얼> 개발·확산으로 합리적 공연제작 환경 조성 기반 마련
    - \*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는 공공극장의 합리적 공연제작 기준(기획, 심의, 제작, 홍보 등) 제시
  - (개선)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공연장 접근성 제고 (Barrier-free)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향상
    - \* 자동문, 무대-객석 간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 등 시설 개선
    - \* <장애인 예술단체 대관을 위한 지침> 마련
- (강화) 더 나은 공연장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점점 근무자의 '블랙컨슈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강화, 법정 노동시간 준수

### 미술관

### 전문성과 실험성을 갖춘 시각예술 창작 플랫폼

## □ 미술관 운영 전문성 및 현장성 강화

- (한계) 미술관 운영의 현장성·전문성 부족(아르코혁신TF 조직분야 혁신과제)
- (개선) 개방형 직위로 미술관장(본부장급) 채용
  - 학예 전문성 보완을 통해 전시기획 심화, 현장 네트워크 강화 등 미술관 운영의 질적 향상 도모
  - 미술관장의 본부장급 격상을 통해 대외 위상 제고

## □ 신진, 중진작가 체계적 지원, 동시대 시각예술 담론 생산의 거점

- (아르코미술관 운영) 동시대 시각예술 담론 생산 및 창작 플랫폼 역할 강화
  - (한계) 예산 및 학예인력 부족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전시가 기획되기 어려운 환경
  - (개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신임 미술관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연구가 바탕이 된 전시기획 시스템 구축
    - \* 선(先) 연구 → 타당성 검토(내외부 전문가의 검토) → 심화연구 → 전시 기획안 채택 → 전시준비 등 전시기획 과정 체계화, 1년 이상의 준비기간 확보
    - \* 국내외 시각예술계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주제기획전, 중진작가전 심화로 미술관의 정체성 강화
  - (아카이브 강화) 전시와 연계한 연구출판 기획 추진

기존	개선
개별 작가에 대한 필진 한명의 연구론 게재로 설득력 약화 및 미술계 관심 유도 부족	전시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영문 혼용 연구출판 기획, 시각예술 연구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 (환경개선) 개관한지 40년이 지난 미술관으로 시설 개·보수 개시
  - \* 사용연한이 지난 보일러, 전시장 냉방기 등 교체
  - \* 벽체(벽돌) 구조 보강, 벽체 배부름 현상 해소, 옥상 방수 등 안전 유지 보수 시행
  - \* 차년도 유지 보수 내용 점검 및 예산 확보 등 중장기 관점의 시설개선 노력
- (인사미술공간 운영) 새로운 시각예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한계) 신진작가 개인전 위주의 공간 운영
    - \* 신진작가 육성에는 기여했으나 유사 기능을 하는 공간이 많아져 인미공의 차별성이 부족, 전시에 치우쳐 인미공의 담론 선점 및 발신 기능 약화
  - (개선) 인미공 20주년 계기 사업 개편
    - 20주년을 계기 인미공의 성과를 정리(아카이브 전시, 출판 등)
    - 신세대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신진예술가 그룹 주제기획전 (연 1회)
    - 탈장르, 융합형 예술을 위한 아트랩(Art Lab) 운영
      - \* 현장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실험과 과정 중심의 아트랩 운영
      - \* 담론 소통 및 기획 전시 개최

### 1-3. 예술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 □ 창작과정을 존중하는 ‘열린 심의’ 구현

- 예술가의 입장에서 공모 사업 운영 전면 개선
  - (한계) 사업별 기존 제출서류 양식의 복잡함과 심의기준의 모호성, 공모 시기 적절성 등 심의과정에 대한 불만 및 불편 호소
    - \* 심의기준에 대한 불공정 응답 ('19) 41.2%
  - (개선) 예술가 중심의 간편한 신청서 양식 및 심의기준 마련

구분	주요 개선사항
신청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중복 항목 정비를 통한 최소 필요 항목으로 구성 (예 : 기획의도/사업목적, 기대효과/파급효과 등 중복용어 정리)</li> <li>▶ 행정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생활 용어로 변경</li> <li>▶ 가독성이 유려하도록 디자인 개선</li> </ul>
심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기준의 불명확한 부분 구체적으로 명시</li> <li>▶ 중복 문항 해소, 불필요항목 삭제 등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심의기준 항목 재정비 (예: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유사한 용어 중복 제거)</li> </ul>
공모시기	10월 정시공모의 안정적 운영 및 수시공모 운영으로 현장수요 대응

- 심의진행 전 과정에 쌍방향 소통방식 강화
  - (한계) 심의과정 대한 투명성, 참여성, 객관성 한계
    - \* 면접 심의 시 충분한 인터뷰 시간 부족, 심의 정보의 비대칭 증가, 관객 평가 반영 부족 등
  - (개선) 토론형 심의 운영, 심의 참관제 및 관객평가제 확대

구분	주요 개선사항
토론형 심의운영	PT 대비 인터뷰 시간비율을 최소 2배로 보장하고, 일방적인 질문-응답이 아닌 쌍방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운영
심의참관제 운영	심의과정에 신청자 PT 참관으로 발전적 상호학습기회 제공
관객평가제 확대	소케이스 심의 관객평가 비중 ('19) 10% → ('20) 20%로 확대

- 심의결과의 수용도 제고 노력
  - (공정심의 설문조사) 지원심의의 공정성 모니터링 지속 추진
    - \* 심의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 응답 ('18) 62.8% → ('19) 66.1%(3.3%p↑)
  - (발표 시기 및 내용 개선) 1차 심의결과 발표 및 정보공개 확대
    - \* 단계별 심의운영으로 최종 결과 발표까지 장기간 소모되는 사업은 예술가가 다른 활동준비를 위한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하고, 결과 수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기존) 최종결과만 발표 → (개선) 심의단계별 결과 발표
-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체계화
  - (한계) 심의위원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한 지속적 관리 어려움 발생 및 심의위원풀의 비정기적인 보완으로 현장 참여기회 제한
  - (개선) 심의·전문가 온라인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연중 본인등록 신청 및 분기별 선정위원회 개최
    - \* 심의위원 후보단 수 ('19) 1,180명 → ('20) 2,000명 이상 확보
    - \* 세부장르 51개 → 59개로 확대 및 누적형 심의총량제 운영
    - \* 심의위원 메타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심의위원 풀 정교화로 전문성 유지

#### □ 과감하고 혁신적인 심의제도의 실험적 운영

기존	개선
심의위원 후보단내 심의위원 선정, 등 획일적인 심의방식 적용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심의제도 구현에 한계	▶ 사업목적에 연계되는 다양한 심의제도를 혁신적으로 시도 및 정착

- (전담심의위원회제 도입)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일관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사업의 단계별 심의는 물론 평가, 모니터링, 자문 역할 등을 연간 수행
  - \* 적용사업 :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지역협력형 심의 도입) 지역 균형적인 공공기금 지원을 위해 광역 문화재단과 협력모델 구축
  - \* 적용사업 : 신나는예술여행 일자리(일거리) 창출형
- (공정심의평가관제 도입) 지원심의회외에 외부 평가관을 참관하도록 하여 객관적 모니터링 추진

## □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 성평등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확대
  - 예술위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성폭력 예방 서약서 체결 의무화
  -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 사법적 판결 이전에 소정의 행정절차에 근거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영구 공적 배제 조치
  - 여성 예술인 문예기금 지원 실태 조사 및 성평등 기반 지원 정책 마련
- 예술계 공정임금 등 정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여 인건비 편취나 횡령 방지
    - \* ('20년)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85% 이상 확대 추진
- 부정수급 및 미정산 등 보조금 위반단체 관리 체계화
  - 고의·거짓 등으로 부정수급한 혐의 확인 시 지체 없이 고발·수사의뢰 추진 및 보조금법에 따른 부정수급 제재 조치
    - \* (필요시) 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 추진
- e나라도움 안내센터 안정적 운영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강화
  - 전문인력 확충 및 NCAS 등 통합 서비스 제공 확대
    - \* e나라도움 상담원 : ('19년) 2.5명 → ('20년) 최소 3명 이상 유지

## 2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 ◆ 현황

- 불평등 심화, 노령화, 다문화 사회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술의 감수성과 창의성 주목
  - \* 대전역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우범지역을 청소년이 통행가능한 곳으로 변모 및 '2018 기재부 시민참여참여과제 장려상 수상'
  - \* '2019 도시재생 뉴딜대상' 문화예술을 가미한 도시재생 사업인 감천문화마을 선정
- 소득별 문화 향유 격차는 여전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는 매년 증가
  - \*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조사 이래 최초 80%대로 진입
    - '18년 문화예술 관람률 81.5% 관람횟수 5.6회, '16년 대비 전 분야 관람률 상승
  - \*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100만 원 미만은 42.5%, 100~200만 원 미만은 58.4%이나,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는 91.9%
  - \* 문화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작품의 질' 응답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 ◇ 문화예술로 사회 문제 창의적 접근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 예술의 창의성을 사회 곳곳에 발현하여, 예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와 이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후원 총량 확대
- ◇ 국민의 문화예술 관심과 참여 의지에 부응하는 사업 확대 및 다각화

### 2-1.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가치 확산 | 지역 현안에 대한 창의적 접근 및 예술로 지역활력화

- (신규-공공예술)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통해 출연된 재원으로 공공 예술 연구사업, 기관 협력형 특화사업,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층위의 공공예술사업 추진
  - 사업추진 과정에서 프로젝트 실현의 과정에서 온라인, 빅데이터 등

ICT, 4차 산업기술의 활용을 적극 지원

-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년도 또는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예술의 사회적 기여 사례 확충)** 지역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에 대해 문화 예술의 창의적 접근 및 이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참여형 사업 운영

- (신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3개 시범 운영 및 진행 (각 1억원)
- \*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주민참여 토론회 등) 아카이빙 지원

- **(지역 공동체 활성화)** 문화 예술로 지역의 활력 제고

- (문화다양성) 기존 다문화 차원에서 벗어나 계층·세대·지역·이념·성별·장르의 공존·상생의 사회적 인식 확대 및 소수자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인생나눔) 대상별·시기별 교육체계 개선 운영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한 사업 성과 제고
-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운영) 시기별 주제 범주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획 추진 및 사업 대표 영상콘텐츠 개발

**공감대 형성 | 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과 매개를 통한 확산**

- **(신규 사업 개발)** 예술가치 확산 사업 개발을 위한 예술가치확산소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한계) 예술가치에 대한 예술계와 사회의 컨센서스 부족으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어려움
- (개선) 선행연구를 검토 및 사례를 분석하여 예술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예술계 및 사회 각 분야와 공유
- 예술위원회의 기존 사업을 예술가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함과 더불어 예술가치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 **(브랜드 강화)** 예술 가치의 확산 브랜드로서 “예술나무”와 “인증제도” 운영 고도화

- (예술나무) 문화예술계 유일의 후원브랜드인 “예술나무”에 예술의 가치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가치 확산과 후원을 연계
- (인증제도) 예술 가치에 공감하는 기업의 확산을 위해 “후원우수기관인증제도”의 적극적 운영으로 인증 기관 확대

\* ('20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을 통해 인증에 따른 지원 신규 도입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인증제도**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증 제도
- ('19년) 벽산엔지니어링 등 기존 26개 기업에 신규인증 기업 12개(한국농어촌공사 등)가 추가되어 현재 총 38개 기업이 인증
- ('20년) 공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50개 기업 인증 목표

- 기부자와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기부금 사업 추진

- (플랫폼 구축) 예술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기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부자와 수혜자가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용가능한 플랫폼 구축
- (콘텐츠 강화) 예술위 핵심 지원사업을 기부 콘텐츠화하고 클라우드 편딩, CMS(정기계좌이체) 등 기부 방식 다양화

**문예기금 기부금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모금액	21,630	26,905	20,709	22,453	23,176

단위 : 백만원

- 후원총량 확대를 위한 민간 후원매개 활동 지원 강화

- (확대) 한국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 등 사업 지원('19년 20억→'20년 40억)
- (개선) 인증 후원매개단체의 매개활동 지원
- (신규) 후원매개인력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사업 추진

## 2-2. 문화예술 가치 보존

### □ 예술기록유산 수집·보존 체계 및 인프라 강화

-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고도화
  - (4차 운영계획 수립) 구술채록 사업의 연구 성과 및 채록 컬렉션 관리에 대한 종합 평가 추진 → 구술채록사업 4차 운영계획('20~'25) 수립
    - \* 생애사 구술후보자 및 주제사 추진 관련 구술자 풀 확보, 우선순위 확정 : 전 장르별 5개년 3배수 구술후보자 180명 추가선정으로 전체 890명 후보자 명단 확보
  - (수행성과 확산) 구술채록 사업 결과물 활용 서비스 확대
    - \* 논문공모, 미나다큐 제작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모색
  - (영구보존 강화) 역대 구술채록컬렉션 관리를 통한 보존체계 강화
    - \* (기존) 열람 중심의 자료관리(DVD, 채록문 편집본) → (개선) 유형별(영상, 음성, 채록문) 원본자료의 정리, 매체변환, 노후화 개선을 통한 분류, 정리, 등록, 보존

17개년 분야별 구술채록 역대 연구 현황 (2003~2019)

구분	공연예술	시각예술	대중	영화	문학	문화제도	합계
연구건수	165	99건	17건	5건	36건	1건	323건

- 공연 실황 영상 기록(63건 목표)과 기록물 확산을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 주요 공연 영상자료 확보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공동 사업, 자료 교류 협력 강화
    - \* ('19년) 2개 기관 (네이버, 예술경영지원센터) → ('20년) 3개 기관 확대 예정
  -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연 영상 콘텐츠의 활용성 및 참여 예술가, 예술단체 수혜 확대
    - \* ('19년) 네이버 VLIVE 국내외 공연작품 16편 생중계 진행 중
- 전문가 포럼(저작권 분야 등) 개최를 통한 소장 기록물의 아카이빙 및 활용성 확대
- 문화예술 기록관리 시설 전문성 제고
  - 장기 보존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 확보, 보존·서비스를 위한 특수 설비 도입 및 기록관리 기능성 최적화 계획 수립
    - \* 부지 확보 및 시설 건·개축을 위한 지자체 협의, 예산 확보 노력

### □ 예술기록 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다각적 서비스 개발

- 고객 특성에 맞춘 예술 아카이브 서비스 개발
  - 도서관과 아카이브 기능 혼재 극복 → 연구자·창작자에 대한 전문 정보 서비스 제공 강화
    - \* 예술대학 수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기록물 활용을 위한 각종 수속 간소화, 열람 및 대출 범위 확대 방안 모색
  - 예술자료 컬렉션을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
    - \* 문헌정보실 악보컬렉션 구성, 신청자료 열람실, 전시 공간 신규 구성 등 이용자 편의 확대
- 예술기록물 활용 견인 및 서비스 활성화 추진
  - 소장자료 및 소장컬렉션의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
  - 사서 큐레이션 확대,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 예시) '연출가 임영웅과 고도를 기다리며 아카이브 展' 등

### □ 문화예술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 확대

- 소장자료 디지털 서비스 확대
  - 디지털 변환 데이터 공유·연계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확대
    -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사업 협력(MOU 체결예정)을 통해 소장 공연 프로그램 및 전시 도록 ('19년) 1만 여건 → ('20년) 4만 여건 디지털화 추진 예정
- 온라인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기존(~'19)	변경('20~)
- 이원화된 별도 사이트 운영 · 전자도서관( <a href="http://archive.arko.or.kr">http://archive.arko.or.kr</a> )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a href="http://www.daarts.or.kr">www.daarts.or.kr</a> )	- 아르크예술기록원 대표 홈페이지 내 통합 운영 및 신규 디자인 적용(개편) - 모바일 반응형 웹 적용(신규)

- 공연영상 콘텐츠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기존) SD급 영상 제공 → (개선) HD급 영상 서비스
- 예술위 지원 사업 결과물의 아카이빙 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예술 자료 확보

## 2-3.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 □ 문화누리카드사업 확대를 통한 소득별 문화 향유 격차 완화

- **(선제적·능동적인 행정)**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대상자 수 확대\* 및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권리구제>시스템 연계\*\*로 누락대상자 적극적·능동적 발굴
  - \* ('19년) 연 8만 원/160만 명 → ('20년) 9만 원/161만 명
  - \*\* ('19년) 한부모가정 대상 권리구제 실시 → ('20년)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
- **(가맹점 확대 및 관리 강화)**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가맹점 확대 및 신규사용처(업종) 국민제안제도 도입
  - \* ('19년) 자체 조사에 의한 발굴 → ('20년)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신규분야 확대
- **(사업 모니터링 체계 개선)** 관행적 부정사용 등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정비로 보조금 누수방지
  - 복지시설 이용지침 개정 및 관리체계 정비 등 시설이용방식 개선
    - \* 전수조사, 관리감독 주체 지정, 조사 정례화, 위반행위 시 조치사항 구체화
  - 복합가맹점 우선 현장조사 및 이상결제(단시간 다건결제)·목적외 사용 집중 점검
  - 부정행위관리지침 개정안에 맞춘 통합부정행위신고센터 운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상시적 교육체계 마련)** 빈번한 지자체 담당자 변경에 대비, 업무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영상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 \* ('19년) 설명회 개최(연1회) → ('20년) 설명회 개최(연1회)+상시 교육 가능한 영상프로그램 제작

### □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급

- **(프로그램 향상)**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 도입 ('19.10월)에 따른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 (한계) 현재 신나는예술여행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소규모, 프로젝트 기반의 임시조직 형태로 프로그램 수준 향상이 어려움
- (개선) 예술단체의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 → 양질의 향유프로그램 제공

\* 해외사례)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 조직의 약1/3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

- **(정책효과 제고)** 신나는 예술여행 외 방방곡곡(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가 있는 날(지역문화진흥원), 꿈다락 교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유사 목적을 가진 사업 간 연계 방안 마련으로 사업의 시너지 제고
  - \* (한계) 사업대상지, 각 기관별 선정단체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 → (개선) 유관기관 간 선정단체 및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부 공유로 수혜지에 풍부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공급 가능
    - 예시) 사업대상지에 개별, 각개 일정으로 보급되던 예술체험·교육과 향유 프로그램 동시 제공
- **(권역별 참여)** 17개 시·도별 소외지역 대상 유사사업과 연계 강화
  - 각 광역문화재단과의 협의를 통한 합동 심의·모니터링·성과관리 체계 구축
    - \* 대상사업 : 청년예술가 대상 일자리 창출사업, 64.5억원 / '20.1~2월 심의예정
  -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 운영시설 및 민간 복지시설 등 참여 유도
    - \*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수도권/대도시권과의 격차 완화

### 3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

#### ◆ 내·외부 기관 운영 혁신 과제 제시 및 현황

• (아르코혁신TF) 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 제안 ('18. 5)

- 다양한 예술현장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소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지역문화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예술 정책과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혁신할 것
- 혁신안의 지속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하여 예술위 사무처의 조직혁신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아르코 비전 2030) 기관운영체계 혁신을 위한 3대 세부과제 및 현장 협력 기관 운영을 위한 2대 세부과제 설정('19.10월)

• (새로운 리더십) 6기 위원회 운영 종료 및 7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시 예정

- ◇ 기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의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신임 위원 현장 소통 및 경영 참여 지원 강화
- ◇ 현장지향적 사무처 운영 혁신과 비전2030 추진 동력 확보
- ◇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촉진하여 조직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 하고 예술행정 전문가로서 현장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 3-1.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

##### □ 현장을 대표하는 위원회·소위원회 참여 효율성 제고

- (현장소통강화) 소위원회의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통로 마련
  - 예술 현장에서 필요한 의제 중심의 소위원회 재구성 및 참여 민간 위원의 현장 대표성과 책임성, 역할 강화

기존	개선
소위원회 개별 간사가 OT 실시 및 운영 격차 발생	▶ 합동 소위원회 운영 OT 개최로 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역할 및 책임 공유

- (신규) 예술 현장의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기관 홈페이지 내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메일 계정 개설
- (강화) 소위원회별 현장 토론회, 집담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활동 지원

- (회의 참여 활성화) 위원회 및 소위원회 참여 방식의 다면화
  - (사전 의견 수렴 제도 도입)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사전 의결서 제출을 통한 의견 접수로 각 분야별 위원의 전문적 견해가 누수 없이 의결과정에 반영

- (영상회의 도입)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시 영상 회의를 통한 지리적 제약 없이 참여 편의성 제고

\* 모든 지역 예술가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 신임 위원회의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 강화

- 신임 위원에 대한 신속한 실무 이해 지원으로 능동적 정책 발굴 촉진
  - (오리엔테이션 개선) 신임 위원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경영 참여 지원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오리엔테이션 추진

기존	개선
기관 연혁, 지원 사업 소개 등의 피상적 내용	▶ 역대 위원의 경영제언 내용과 옴부즈만 제도 등 위원의 역할 위주 오리엔테이션 개최

- (연석 워크숍 개최) 위원 교체기의 원활한 현안 인수인계 및 기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충실한 논의 지속으로 누수 없는 기관 운영

\* 역대·신임 위원, 신규 소위원회, 사무처, 예술현장 등과 연석 워크숍을 개최

### 3-2. 기관운영체계 혁신

#### □ 현장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처 혁신

- 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참여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고객지향 조직으로 혁신
- 위원회·소위원회 적극 지원 및 예술현장과 소통채널을 통해 협력적 관계 구축이 가능한 체제로 조직 개편 및 혁신
- 사업 디자인에 시민·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열린 혁신 추진
- 중앙-지역 간 협력체계 공고화를 위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확대 개편 → (가칭)한국예술지원협의회 구축으로 문화예술계 담론 형성 및 상시 소통채널 구축으로 예술정책과 지원체계 효과성 제고

한국지역문화협의체 개편(안)

구분	현재	개편(안)
중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간사기관)
지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6개 광역문화재단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6개 광역문화재단

#### □ 사업혁신과 경영효율화를 선도하는 정책대안 개발기능 강화

- 아르코비전2030 중장기전략 실현을 위한 사업혁신 방안 연구개발 추진
- 새로운 비전전략체계(2019.10.22.선포)의 전략과제 실행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마련
- \* 사업성과 실태조사, 사업운영 개선방안, 새로운 사업 개발 연구 등

정책연구개발 중점추진방향

- 문화비전2030, 새예술정책, 기관 비전전략 체계에 연계한, 예술 창작 및 향유 지원 사업 개선 방안과 신규사업 개발 중점 추진
- 현재 개발되지 않은 필요한 중요 실태조사(리서치) 과제 개발

#### ○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강화

- 현행 종합운영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성과와 사무처 각 부서의 경영 효율성을 종합 평가 실시

종합평가제도 중점개선방향

- 평가방향 : 사업과 경영 2대 분야의 효과성, 효율성을 진단, 평가하여 사업 및 경영체계 혁신에 적극 환류
- 지표체계 : 계량적 지표의 중요도를 유지하되, 이전 대비 혁신노력과 개선성과를 중점 평가

#### □ 내부 전문성 강화 및 보상체계 고도화

-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체계 개선으로 예술행정 전문가 양성
- (교육훈련) 역량모델링을 통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구축 → 업계 최고 수준의 인재발굴을 위한 중장기 인재육성 기반 마련
- \* 이룬 중심 단순 교육에서 탈피하고 예술현장의 다양한 수요 반영
- (인사관리) 직원 개별 면담을 통해 기관 특성에 적합한 경력개발 경로(CDP) 설계 → 사업별 위원회 대표선수 양성 기반 마련

인사관리 현황

- 2~3년 주기의 순환보직은 업무 노하우 축적 등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
- 직무별 직군을 설계하고 보직이동(직군내·직군간) 원칙 수립 필요

#### ○ 보상체계 고도화를 통한 동기부여 및 조직 업무생산성 제고

- (정규직) 승진제도 운영 정상화를 통한 고위직급 승진적체 해소

승진제도 운영현황

-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인하여 고위직급 승진 5년간 정체
- 2015년~2019년까지 블랙리스트 징계 등 승진임용제한으로 3급이상 승진자 0명 →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운영 정상화 필요

- (무기계약직) 승진제도 확대를 통한 단계적 차별 해소로 아래로부터의 성과독려 및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 \* 2017년도부터 차별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직급체계 운영 중 → 인건비 자원 확보를 통해 승진인원 지속 확대필요

## IV. 현안과제

### 1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 지역불균형 해소

#### □ 지원 사업의 지역 편중 문제 제기

- 국회, 언론, 협회 등 위원회 지원사업의 지역편중 문제 제기
  - 기계적 지역별 예산 할당제는 수도권 역차별 문제 발생 가능
  - \* '국정감사 지적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수도권 편중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19.10.17)
  - \*\* 공연단체 수도권 소재 현황 : 서울 44.9%, 경기 12.9%, 인천 3.0% (2018년 공연예술실태조사)

'18, '19년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원 비율

분야	2018년			2019년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 비율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 비율
수도권	5,535	1,980	73.8%	4,346	1,268	71.4%
비수도권	2,507	703	26.2%	1,936	703	28.6%
계	8,042	2,683	100%	6,282	1,776	100%

#### □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단기 추진 방안 마련

- (단기) 지역불균형 지원 해소를 위해 최소보장제 실시
  - '20년 공모사업 중 적용가능 사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지역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가능한 동등하게 유지(필요시 차등적용 가능)
  - \* 지역신청이 25%이상인 경우 최소 25% 유지, 지역신청이 25% 이하인 경우 신청률 유지
  - \*\* 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지역우대 1:1), 신나는 예술여행('18년 지역 44%)은 기존 수준 유지
- (장기) 창작 기반의 지역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구조 혁신
  - 국가차원의 문화예술 공적 지원 구조 문제 개선 논의 출발
  - 지역 간 예술 창작 기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위원회 역할 강화 및 중장기적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 혁신

### 2 문예진흥기금 안정적 재원마련

####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필요성

- 문예기금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의해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 마련된 유일한 재원
-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국민 문화복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지원
- 기금 지원으로 등단한 신진 예술가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으로 자리 잡는 등 창작역량강화, 지역예술기반 조성(문예회관 건립 등)에 기여

####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방안

- 2022년까지 매년 적립금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을 쌓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계획
  - \* 2020년 예산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축소(500억 원 → 210억 원) 및 복권기금 사업비 증액분 수입 미반영(생활안정자금 용자 105억 원)으로 적립금 확보 차질 발생
- 현재 사업비 수준(3,000억 원)을 유지하고 매년 1,000억 원씩 적립금을 쌓으려면, 평균 3,300억 원 내외의 지속적인 외부재원 조달 필요
- 법률 개정 없이 정책결정으로 추진 가능한 국고 출연으로 단기 고갈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 안정화 재원 발굴은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
- 문화예술 발전의 혜택을 받는 타 분야의 재원(관광, 체육, 복권, 건강증진기금 등)에서 문예기금으로의 법정전입, 세제 개편 등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

## V. 한눈에 보는 “2020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예술의 창의성 다양성 존중	예술가와 예술단체 창작활동 1,900 여건 지원
	예술 창작물 유통 확대 246건 ⇒ 360건
	문화예술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 31건 ⇒ 39건
	심의수용도 제고 66.1% ⇒ 69.2%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 향상 1인당 8만원 ⇒ 1인당 9만원
	신나는 예술여행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46 ⇒ 63
	민·관 협력 예술 기부건수 85 ⇒ 114
자율과 협력기반의 기관 운영	기관 경영 평가 B등급 ⇒ A등급
	고객만족도 향상 77.3점 ⇒ 79.1점
	기관청렴도 향상 4등급 ⇒ 3등급

## VII. 참고 자료

### 1 법률 개정안 계류 현황

#### I.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개요

- 의안번호 : 20573
- 발의연월일 : 2019. 5. 22.
- 발의자 :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 신동근·기동민·이종걸 김태년·전재수·윤호중·김병관·윤일규·변재일·김철민·서형수·이철희 의원(12인)

##### 2. 제안 이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음. 또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으로서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새로운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새로 개시됨
- 그런데 위원회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실상 독임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가 현행과 같이 임명 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정해져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 최근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민주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 개정 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했음
-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함

### 4. 진행 상황 : 문체위 심사 중(안건 상정 전)

## II.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개요

- 의안번호 : 16768
- 발의연월일 : 2018. 11. 23.
- 발의자 :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김영주·이동섭·정세균·정성호·강병원·김종민·박용진·이상현·손혜원·이원욱·우상호 의원(11인)

### 2. 제안 이유

-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이라 함)은 매년 일부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함)으로 전출하고 있음
- 그런데 2003년 헌법재판소는 공연관람료 등에 문예기금의 납입금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이후 문예기금은 적립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재원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예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광기금 외에 문예기금에도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예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3. 주요 개정 내용

-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 …… 금액을 배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배분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진행 상황 : 문체위 심사 중

- 2019. 6.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전문위원(조의섭) 검토보고 내용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술창작지원 분야의 유일한 재원으로 그동안 기초예술 육성에 기여해 온 측면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의 법적 성격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의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관광사업 발전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카지노사업자에게 동 납부금을 부담시키고 국가의 관광사업의 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용도와는 관련성이 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 재원으로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활용하려는 개정안은 동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국가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이 전입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법령 아래서도 문화예술기금에 대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중국관광객 감소와 인접국들의 카지노사업 활성화 정책 등으로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의 지속적 증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을 배분해주게 되면 관광업계 지원 축소로 관광 분야의 발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부담금 징수의 목적, 용도 등이 훼손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부담금납부자, 수혜집단, 관련업계 등 관계자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만큼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혀왔음

### Ⅲ.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개요

- 의안번호 : 16778
- 발의연월일 : 2018. 11. 23.
- 발의자 :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김영주·이동섭·정세균·정성호·강병원·김종민·박용진·이상헌·손혜원·이원욱·우상호 의원(11인)

#### 2. 제안 이유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모금제폐지 이후 별다른 고정 재원 없이 적립금을 사용해왔으며, 그 결과 적립금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음
-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배분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법정배분대상 기금이 아닌 기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배분 비율이 불안정하고 그 사용처가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향유 사업에 한정되어 문화예술진흥의 본질인 문화예술의 창작 등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문화예술지원의 균형을 위하여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3. 주요 개정 내용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40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설>

- 법정배분대상 외에 복권기금 사용이 가능한 기타 공익사업의 대상에서 '문화·예술 진흥사업' 삭제

#### 4. 진행 상황 : 기재위 심사 중

- 2019. 3.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원회
-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검토보고 내용
  - 개정안과 같이 복권기금의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배분비율을 현행

-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할 경우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배분액이 약 1,000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증액분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고정적으로 배분한다면 동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복권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익사업 명목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정배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배분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재원 확보에 불확실성이 큰 측면이 있음
- 다만,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기금 설치 이전에 개별적으로 복권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10개 기관이 복권사업 통합 이후에도 복권수익금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신규로 법정배분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당초 동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기존 수혜기관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도 있음
  - 또한 법정배분비율을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할 경우 공익사업에 대한 배분액이 줄어들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타 기금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이 늘어남에 따라 재원배분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도 있음
  - 또한 현재도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재와 같이 복권기금 공익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그 사용처가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향유 사업에 한정되어 법정배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복권기금의 설치목적과 재원 등을 고려할 때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지원액도 소외계층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법정배분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복권기금의 설치목적과 법정배분제도의 도입 취지 및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IV.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 개요

- 의안번호 : 16770
- 발의연월일 : 2018. 11. 23.
- 발의자 :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김영주·이동섭·정세균·정성호·강병원·김종민·박용진·이상현·손혜원·이원욱·우상호 의원(11인)

##### 2. 제안 이유

- 2003년 헌법재판소는 공연관람료 등에 문예기금에 대한 납입금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 이후 문예기금의 잔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문예기금의 재원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문예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문예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 3. 주요 개정 내용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략)
  -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신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신설>

##### 4. 진행 상황 : 문체위 심사 중

- 2019. 6. 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수석전문위원(임익상) 검토보고 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재원의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으로, 이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특정 과제를 위한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금원임.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공적기관에 의한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문화예술기금의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 관광사업의 발전과 해외관광객 유치 등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다는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충실히 마련될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국가재정법」 제13조의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일정 금액이 전입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를 문예기금으로 직접 납부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은 지원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여유재원을 문예기금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복권법」에 따른 복권수익금 중 법정배분액
  - 개정안의 내용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논의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축소·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정배분 비율 상향 조정 및 신규 대상기관의 추가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법정배분이 증가하는 경우 저소득·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축소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개정논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2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방안

### I. 재원 확충 개요

#### 1. 필요성

- 문예기금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의해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 마련된 유일한 재원
-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국민 문화복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지원
- 기금 지원으로 등단한 신진 예술가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으로 자리 잡는 등 창작역량강화, 지역예술기반 조성(문예회관 건립 등)에 기여

#### 2. 문예기금 현황

- 2018년 12월 말 기준 문예기금 적립금은 920억 원임
- 2004년 5,272억 원에 달하던 적립금은 2003년 말 모금제도의 폐지로 인한 기금 자체수입 감소, 지속적 사업규모 확대에 의해 고갈위기를 맞이함
- 2018년도 총 2,321억 원, 2019년도 총 3,056억 원의 국고 및 타 기금 전입으로 예산 편성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14년 말	'15년 말	'16년 말	'17년 말	'18년 말	'19년 말 (계획)
수입(A)	1,195	1,685	2,153	1,967	2,863	3,692
지출(B)	2,012	2,091	2,285	2,294	2,412	2,767
평가손익(C)*	△31	△31	△166	59	△76	-
수지차(D=A-B+C)	△848	△437	△297	△268	375	925
<b>기말 적립금</b>	<b>1,547</b>	<b>1,110</b>	<b>813</b>	<b>545</b>	<b>920</b>	<b>1,845</b>

※ 평가손익 : 기말 적립금 잔액과 당년도 문예기금 수입, 지출간 순 수지차와의 결산 상 차액으로, 복권기금, 조건부기부금 등 문예기금 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 재원과 적립금의 운용손실(이익금은 수입에 포함)로 발생

- 현재 임시방편의 전입금 예산 편성으로 재원구조가 취약한 상황

## II. 재원 확충 방안

### 1. 방향성

- 2022년까지 매년 적립금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을 쌓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계획
  - ※ 2020년 예산 정부안 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축소(500억 원 → 210억 원) 및 복권 기금 사업비 증액분 수입 미반영(생활안정자금 용자 105억 원)으로 적립금 확보 차질 발생
- 현재 사업비 수준(3,000억 원)을 유지하고 매년 1,000억 원씩 적립금을 쌓으려면, 평균 3,300억 원 내외의 지속적인 외부재원 조달 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외부수입 <sup>1)</sup>	2,321	3,056	2,828	3,238	3,238
자체수입 <sup>2)</sup>	542	636	661	680	700
수입 총계 <A>	2,863	3,692	3,489	3,918	3,938
지출(사업비 등) <sup>3)</sup> <B>	2,412	2,767	2,887	3,000	3,000
적립금 <A-B>	451	925	602	918	938
(기말 적립금 누적액)	(920)	(1,845)	(2,447)	(3,365)	(4,303)

- 1) 단기적으로 일반회계 전입, 장기적으로 타 기금 전입 및 추가 세원 발굴 병행
- 2) 기부금(280억원), 경륜경정수익(170억원), 골프장 입장권(60억원), 적립금운용수익(45억원, 적립금에 대한 5% 수익 가정), 보조금 반환수입(100억원) 등으로 구성
- 3)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산출

### 2. 재원확충 방안

- 법 개정 없이 정책결정으로 추진 가능한 국고 출연으로 단기 고갈 위기에 대응하고, 장기적 안정화 재원 발굴은 법개정을 통해 추진
- 문화예술 발전의 혜택을 받는 타 분야의 재원(관광, 체육, 복권, 건강증진기금 등)에서 문예기금으로의 법정 전입, 세제 개편 등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

구 분	내 용
국고 출연	· 문예기금으로의 출연을 통해 예술지원 사업 운영
공연산업 부가가치세 문화세 전환	· 공연장 대관료, 공연티켓 부가가치세의 문화세 전환 · 문화세 전환대상 : 영리목적 공연과 전시회와 같은 문화행사, 예술 창작품이 아닌 연극과 뮤지컬 공연에 대한 부가가치세
담배세 일부 문화세 전환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세)의 일정 비율(3~5%)를 문화세로 전환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논리
체육진흥기금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의 출연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 치유 논리
마사회 수익금(경마)	· 국민 여가 선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 지원 논리
복권기금	· 문예기금 출연의 법정배분사업화
방송통신발전기금	· 문화예술이 방송통신콘텐츠 발전 기반이라는 논리